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양로원에 위문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봉)는 지난 14일 나주시 다도면의 나주시양로원에 쌀과 온누리상품권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캠코 광주전남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투병학생에 수술비 전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최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서 우리지역 소외계층 투병학생에 대한 수술·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장학금 600만원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16일 조장협의회 주관으로 지역사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광주공장 조장협의회는 인제 양성 장학금 600만원을 조목우산 어린이재단의 추천을 받아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전달했다. 또 장학금 전달식 후에는 장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시간을 가졌다.

정상 기아차 광주공장 조장협의회 회장은 “기아차에 보내주시는 지역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역사회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김석담 광주지검 검사 국무총리 표창



김석담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41·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89명의 선거 사범을 처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수사 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트라우마 완치 어렵지만 함께 울어주면 된다”

‘세월호 릴레이 강연’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누가 옳은지 모를 때 약자편에 서는 게 ‘정의’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오늘도 또 다른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3년 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 후보’로 지명된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세월호 릴레이 세 번째 강연. ‘상처입은 치유자, 그 뜨거움’이라는 주제로 청중 앞에 선 광주트라우마센터 강용주(52)센터장은 트라우마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고통피해 당사자로서 후유증을 겪는 이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 센터장은 ‘트라우마는 완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라우마는 완치될 수 없지만 사회가 관심 갖고 치유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그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 열여덟 피끓는 청년이었던 강 센터장은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히는 이들을 보며 시민군에 동참했다. 그날이 지나고 복학했지만 도청에서 희생된 이들이 자주 떠올라 방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군을 치료하던 헌신적인 의사들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한 끝에 의대에 진학했다. 의대생이 됐

만 앞질러는 평탄하지 않았다. 1985년 구미유학학 강점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4년간 감옥살이를 겪었다. 80년 광주를 지켜보고 10년 넘게 감옥살이를 겪었기에 누구보다 트라우마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는 이제 치유자가 됐다.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스스로 오롯이 트라우마를 겪어낸, 그리고 마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고통피해 당사자로서 후유증을 겪는 이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 센터장은 ‘트라우마는 완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라우마는 완치될 수 없지만 사회가 관심 갖고 치유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그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치료도 끄떡한 기억이 생기기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존자들이 과거의 눈물과 아픔에 짓눌려 남은 삶까지 고통에 짓눌려 치유하는, 그리고 치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생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세월호 가족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5·18과 세월호. 강 센터장은 두 사건에서 공통점을 강조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총칼로 위협하고,

죽어가는 것을 무능하게 지켜봤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잘못과 실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덮기 급급한 정부와 기득권 계층 때문에 생존자와 사회가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는 72시간을 지켜본 대중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을 절감했다는 것.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떠나면서 겪은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자기에 게도 일어날 수 있고, 한번 일어났기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불안’이 만연한 우리 사회가 트라우마를 치유할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 옳은지 모를 때, 증립은 강자의 편을 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모를 때 우리는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과 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 왔던 대중. 이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부터 출발할 때 치유는 시작됩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광주·전남 중국유학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열려

남부대 이소연씨 우승

한중문화협회 광주지회(회장 안상복)는 지난 15일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2014년도 광주·전남 중국유학생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72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본선에서 21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한국어말하기 대회에는 한중정치외교포럼 이영일 회장, 광주중국어총영사관 장소매 부총영사와 중국유학생, 일반학생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우승한 남부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소연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과 광주를 더 많이 알게 됐다”며 “원고를 준비하며 광주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자는 이소연 씨와 한중문화협회 광주지회장 장복(여 전남대 국어교육과), 광주시장상 장사정(여 조선대 무역학과), 전남도지사 상 황사로(여 전남대 의류학과), 전



남대총장상 장옥(여 광주대 경영학과), 조선대총장상 설설(여 광주여대 미용학과), 순천대총장상 조지강(전남대 신소재공학부), 호남대총장상 최양(조선대학교원 무역학과), 중국주광주총영사상 송은봉(동신대 한국어교원학과), 광주일보사장상 임준순(여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등 10명이다. 안상복 회장은 “중국유학생 한국

어말하기 대회가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친숙하게 여기고,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한중문화협회 광주지회는 중국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중 두 나라 우호증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



전남대 총동창회 골프대회 개최

전남대 총동창회(회장 허정)는 16일 무안 C.C.에서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허정 총동창회장, 지방문 총장, 임내현 의원, 오형국 광주행정부시장 등 35명 140여명 동문들이 참가한 이날 경기는 18홀 조별 신페리오 체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정 회장은 대회를 통해 “동문들 후원과 격려,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한다”며 “오늘 만큼은 일상을 벗어나 시원한 바닷바람과 해안가에서 여유를 즐기며 건강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정병헌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장 21일 세미나



정병헌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장(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은 한국종교문화학회(회장 김영태)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50분까지 전남대 융복합문화관 4층 시청각실에서 신종교의 특성과 동향을 대주제로 2014년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김영복·임종화씨 차남 기열군 김석호·심진숙씨 장녀 유리양=22일(토) 오전 11시 50분 JS 웨딩컨벤션3층 그레이스홀 010-3642-5810.
- ▲박성훈·김선홍씨 장남 종민군 정진섭·임숙녀씨 차녀 다운양=22일(토) 오후 1시 10분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011-601-7711.
- ▲윤현중·하선자씨 장남 득중(진술세 무법인)군 유해상(한전 신남원변전소 과장)·이경순씨 장녀 미량양=22일(토) 오후 1시 전주 노블레스웨딩룸 2층 노블레스홀 010-4573-0689.

종친회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회(회장 이철환)월례회의=18(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회(회장 이보희)월례회의=

- 22(토)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진주 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원구) 추향제 참배=24일(월) 오전 8시 30분 종회 앞 출발 062-228-3368.

알림

- ▲사랑에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

- 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반하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모집

- ▲놀이때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 ▲사랑마로 가족복지회원=종이공예·

- 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팔콘문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회원=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희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화요일에 만나는 희망'참여자=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062-526-3370.
- ▲광주향교·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 회원=우리민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림활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062-672-7410, 7008.
- ▲2014년 시민 학생 인문강좌(수신제 가치국편찬)수강생=과목은 논어(論語) 대학(大學),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광주 YMCA 2층 율안(국민 누구나 수강 가능) 010-3625-5433.

- ▲광주불교교육원 2014년도 불교문화대학 수강생=교육대상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1년 과정), 강의 시간은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월 1회 불교문화 현장학습 실시 062-228-9098.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 분 062-233-0468.

부음

- ▲황가에서 별세 김익수·득수·옥수·수복·숙희·명희씨 모친상=발인 17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 ▲이근옥씨 별세 성화·효영씨 부친상=발인 17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101호 故민병수 님(남/65세) 子/子婦: 민영수/이동현, 민영식/고영민 女: 민희경 未成人: 나미숙 *발 인: 11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양명문 님(남/68세) 子/子婦: 양태청/소영란, 양태민 女: 양미경, 양미숙 未成人: 남진영 *발 인: 11월 18일 *장 지: 해남현천 선영 *연락처: 227-4386
201호 故황덕순 님(여/95세) 子/子婦: 공인남, 공영철/최정희 女/婿: 공귀선, 공춘자/정진수, 공주영/정병준 *발 인: 11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402호 故최현숙 님(여/76세) 子/子婦: 임상수/박영숙, 임상현/김미경 女/婿: 임순영/김민수, 임순화/박현태 *발 인: 11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마음까지 편안함
孝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